

민주 “6개 부처 내정자 모두 부적절” 2기 내각 맹공

홍익표 “한동훈, 인사검증 뒤틀”
정청래 “3개월 단기 알바 장관”
박찬대 “흠결에도 무조건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모두 부적격자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을 떠넘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나같이 부적격자를 보내놓고 인사청문을 하라 하니 국회에 대한 고문인지 상당히 고통스럽다”며 “정책 질의는 뒤틀리고 이 분들을 장관을 시켜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대통령이

어려운 숙제를 국회에 떠넘겼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은 인사청문 관련 검증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다. 정치에 마음이 가서 인사청문 문제는 뒤틀린 듯하다”며 “그럴 거면 빨리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면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공급망 불안 해소 등 산적한 현안에도 오직 총선만을 위해 3개월도 안된 방문급 산자부 장관을 또 교체한다고 발표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할 경질 대상의 총선 출마를 위해 꽃길을 열어준 정부가 어디 있나”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 장관은 취임 3개월 동안 뭐했다.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며

“프랑스판 IRA법이 확정돼 한국 자동차가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원거리로 탄소배출 관련 불이익을 보는데 아무런 대응 준비를 안 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임 후보자가 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프랑스판 IRA법 관련해 책임이 큰 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은 잘못된 사람을 더 큰 잘못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주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3개월짜리 장관은 총선을 위해 바람처럼 스쳐갔나 보다”라며 “국정이 장난인가. 총선에 내보낼 거면 3개월 전에 다른 사람을 장관으로 보냈어야지 이게 뭐냐. 고작 3개월짜리 단기 알바가 총선에서 선전할 리 있느냐”고 가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인사

는 가장 부적절한 인사를 가장 부적절한 자리에 앉힌다는 특징이 있다”며 “검사 출신 인사는 그 어떤 흠결이 있어도 무조건 통과한다. 적재적소라는 원칙 따위는 무시하는 망사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모두 부적격자들”이라며 “어떻게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같이 부적절한 인사다. 윤석열 정부에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말도 지겨울 정도”라고 했다.

더 나아가 “국정운영에 대한 참담한 성적표를 든 장관들이 염치없이 너도나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장관직을 버리고 출사표를 내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어찌되는 말든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나라 망한

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자들이 한가득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어떻게 찾아도 이렇게 골고루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찾을 수 있는지 참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한동훈 장관은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호기롭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에 얘기되고 있으니 참으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정운영 쇄신을 위한 개각 인사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총선용이자 도주용 개각”이라며 “민심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거세게 비판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확실하게 심판해서 윤석열 정권이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 총선 출마자들 “軍·민간 공항 동시 이전 환영”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주말 2차 공항 회동을 통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데 대해 광주 지역 총선 예정자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균택 공산갑 예비후보는 18일 “강 시장과 김 지사의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추진 선언을 환영한다”며 “무안군의 동의가 이뤄지면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 통합공항이전특별법’으로 개정해 대구·경북 통합공항이전특별법 수준의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달 25일 공산구민 정책토론회에서도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이 이전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광주시가 민간공항을 제외하고 군공항만 이전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가

동시 이전 방침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명진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도 이날 시·도 합의를 “의미 있는 정치력”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을 뜻을 표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공항 이전은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합의를 통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두 정치지도자의 의미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예비후보는 “비록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광주공항 이전의 큰 방향과 일정을 가시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정치력을 보여줬다”며 “당선 후 광주공항 이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 시장과 김 지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국회의원, 단체장, 국방부와 정기적인 협의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은지 기자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길위에 김대중’ VIP사회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이재명 대표,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뉴시스

허석 전 순천시장, 출판기념회 성료

허석(사진) 전 순천시장이 지난 17일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三將-사라진 이순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출판기념회에는 김병권·서정진·허유인 전 순천시시장과 퇴직 공무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정세균 전 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성주·김한정·신정훈 국회의원, 조정래 작가 등은 영상을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박재구 순천대 교수와 가수 설운도, 개그맨 이흥렬이 축하를 건넸다.

‘三將(삼장)-사라진 이순신’은 허 전



시장이 ‘노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정말 전사했을까?’라는 호기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찾으면서 집필하게 됐다. 3명의 장군은 이순

신과 정유재란때 명나라 수군으로 참전했던 진린 도독, 등자룡 장군을 의미한다.

허 전 시장은 “순천 정치판과 중앙 정치는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며 “순천에서 민주주의 세력을 다시 일깨우고, 중앙 정치판에서도 검찰 독재를 끝내는데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조현환 “검찰공화국 탄핵” 복구를 출마선언

조현환(사진)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윤석열 탄핵, 민주당 혁신, (가칭)호남미래전략공동회의의 추진으로 호남의 미래 발전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내년 총선 광주 복구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무능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고, 서민의 삶을 위기로 몰고 있다”며 “무능과 무책임의 정치, 검찰공화국 탄핵을 위해 제



대로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의 실패가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낳았다”며 “기득권에 맞서 싸우고, 때문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제가 민주당 혁신을 위해 나서겠다. 사후약방문식 혁신이 아니라 선제적인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주당 혁신기구를 상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민주주의 회복 위해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년 총선 ‘인재 3호’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을 영입했다. 류 전 총경은 영입 일성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인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영입식을 열고 류삼영 전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3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 안타깝게도 경찰을 국민으로부터 권력의 편으로 때 놓으려는 경찰 장악 시도가 있었다. 경찰 공무원으로 정권의 이런 시도에 저항하는 게 쉽지 않다”며 “이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에 저항한 중심적 인물이 바로 류 전 총경”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경찰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경찰로 남아있고 싶었을 걸로 생각되나 그럴 수 없는 엄중한 현실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시게 된 것 같다”며 류 전 총경의 영입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 인재영입식에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에게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뉴시스

이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경찰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영입된 류 전 총경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는 등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그는 총경보다 아래 직급의 보직인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좌천성 인사’라고 반발한 류 전 총경은 지난 7월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 전 총경은 영입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잠탈하는 대통령령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했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침해하는 대통령령을 통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침해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다시 확장하는 ‘검수원복’을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류 전 총경은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불법적 처사다. 이는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전 총경은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여기에 왔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영입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류 전 총경은 지역구, 비례대표 등 출마 방식을 묻는 질문에 “당과 상의해서, 당헌 당규가 있을 테니 거기 맞춰서 진행될 것 같다”고 답했다. 김선욱 기자